

노후농공단지 실태와 대응 방향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

양원탁(전북연구원), 정미선(전북연구원)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되는 산업단지로서, 산업기반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공단지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부터 소외된 농어촌의 농외소득원 창출을 위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기준 전국의 농공단지는 472개에 이른다.

농공단지의 공급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노후 농공단지의 문제가 지역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온 국가·일반산업단지와 달리 농공단지는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관된 1990년대 이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지자체에서는 농공단지의 정비보다 예산투입에 효과적인 농공단지의 신규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하면서 노후 농공단지는 입주업체의 이탈로 인한 휴폐업 증가와 입주업체의 경쟁력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공단지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노후 농공단지의 실태를 물리, 산업, 제도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공단지 개요에서는 농공단지의 개념과 조성목적, 우리나라 농공단지의 노후화 현황과 정책 동향을 조사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진단하였다.

둘째, 전북 농공단지 현황과 경쟁력 진단에서는 전북도 내 농공단지의 일반적인 현황과 공간분포, 산업구조 특성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다른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전북 노후 농공단지의 물리적, 산업적 측면의 경쟁력을 거시적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전북 농공단지의 노후화 실태에서는 전라북도 노후 농공단지의 경쟁력 약화 실태를 물리적, 산업적, 제도적 측면에서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농공단지입주기업 대상 설문조사, 14개 시군 산단 담당자 대상 인터뷰, 도내 30개 노후 농공단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다.

넷째, 전북 노후 농공단지의 문제점 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를 사례로 농공단지의 노후화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단위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여 농공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모색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